

美·英, 러시아산 금속 거래 및 수입 금지 발표

-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속 거래소와 장외거래 파생상품 거래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 (2024.4.12)
 -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금속 수입 감축 조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수 자금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두 가지 금지 조치를 발표함.
 - “금속 수입 금지(Metals Import Determination)” 조치로 2024년 4월 13일 이후에 생산된 러시아 연방 원산지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됨.
 - “금속 서비스 금지(Metals Services Determination)” 는 1) 글로벌 금속 거래소에서 생산된 금속 보증 서비스를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개인에게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과, 2) 2024년 4월 13일 이후에 생산된 금속을 실물 파생계약의 일환으로 획득하는 서비스를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개인에게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
 - 미국과 영국은 올해 초와 작년 말 러시아 금속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전 제재하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던 러시아 주요 금속 회사의 활동이 제한됨.
-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
 - 발표 직후 아시아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9.4% 급등하였으며, 오후 시간대 런던 시장에서는 1.9% 수준으로 상승함.
 - 니켈 가격도 발표 직후 8.8%까지 급등한 후 0.2%로 낮아짐.
 - 해당 조치로 미국이나 영국 외 국가의 구매자에 대한 러시아의 금속 판매를 막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무역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미국과 영국의 금속 거래소에서 2024년 4월 13일 이전에 생산된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수입과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와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가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조치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
 - LME의 가격은 금속 시장 내 계약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며, LME에서의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함.
 - 세계 금속 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와 LME의 러시아산 금속 재고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러시아는 주요 금속 생산국으로, 전 세계 공급에서 니켈 6%, 알루미늄 5%, 구리 4%를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금속 수출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50억 달러,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제재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3월 말 기준으로 LME 보유 러시아산 금속의 비중은 니켈 36%, 구리 62%, 알루미늄 91%를 차지

□ 러-우 전쟁 개시 이후 증대된 러시아와 중국의 산업 결속력이 금번 조치로 인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LME와 CME의 러시아 원산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수입 금지로 인해 주요 금속 거래소 중 하나인 상하이선물거래소(Shanghai Futures Exchange, SHFE)가 세 금속의 러시아 수입을 받는 유일한 주요 거래소가 됨.
- 공식 제재 없이도 중국의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United Co. Rusal International PJSC의 작년 매출 중 23%가 중국에 의한 것이며, 이는 2022년의 8%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의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작년 중국 내 금속 수요는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구리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이며, 러시아산 금속의 추가적인 공급은 중국 금속 산업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Bloomberg, Financial Times, WSJ, LEM, 미 재무부 등)